



綠담웃담

빛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민햇빛발전’

#소담 #시민햇빛발전 #K_GX
#녹색소비자 #재생에너지전환

정현수
GX녹색전환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왜? 전기를 소비하는 대상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자로 나서야 할까?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생태계를 햇빛과 바람을 통한, 에너지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의 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당장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다. 폭염과 폭우,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 속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전 지구적 합의이자 생존의 문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기만 하던 시민들이 직접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이다. '시민햇빛발전소' 빛으로 세상을 바꾸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계기가 될 것이다.

시민햇빛발전,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

시민햇빛발전소는 평범한 시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학교, 공공기관, 주차장 등의 유휴 부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운동이다. 과거의 에너지는 거대한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독점'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시민햇빛발전은 햇빛이라는 무한하고 평등한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분산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소유자가 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과 기업 등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조합원인 시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지역사회 에너지 빈곤층을 돕거나 에너지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재투자된다. 환경을 살리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곧 소수의 대자본이 에너지를 독점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시민이 에너지를 통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녹색소비자'

그간 녹색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마크가 붙은 생필품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이제 녹색소비자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방식 자체를 바꿀 것을 시장에 요구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비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지며, 더 나아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내고 직접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프로슈머(Prosumer, 생산자 겸 소비자)'로 진화하고자 한다. 녹색소비자들은 "우리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거부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깨끗한 전기를 소비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과 정부에 던질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은 기업들의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참여를 압박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이들 녹색소비자가 자신의 신념을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인 셈이다.



K-GX(한국형 녹색전환)의 든든한 뿌리

녹색소비자가 주도하는 시민햇빛발전은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K-GX(Korea Green Transformation)의 가장 든든한 뿌리이자 핵심 동력이다. K-GX는 제조업 중심의 탄소 다배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를 저탄소, 친환경 구조로 전면 개조하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K-GX는 결코 정부의 하향식(Top-down) 정책이나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 투자 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K-GX가 진정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시작되는 상향식(Bottom-up) 변화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즉 녹색소비자(구매자)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산업방식으로는 시장에서의 성공은 불가능한 한 것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필연적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기 쉽다. 그러나 시민이 직접 주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햇빛발전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K-GX 추진 과정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

녹색소비자들이 시민햇빛발전에 투자하는 자본은 K-GX를 이끄는 민간 차원의 '녹색 금융'이다. 이는 국가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중의 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물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과제

물론 시민햇빛발전 이 가야 할 길에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공공 부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전력망 접속 지연,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K-GX 전략 안에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유휴 부지를 시민협동조합에 우선 개방하며, 생산된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햇빛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내린다. 그 평등한 햇빛을 모아 세상을 밝히는 시민햇빛발전은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실천적인 연대의 방식이다.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벗어나 깨끗한 에너지를 요구하고 직접 생산하는 녹색소비자의 등장이 K-GX라는 거대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우리의 지붕 위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전지 한 장 한 장이 모일 때, 화석연료 시대를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진정한 K-GX녹색전환이 완성될 것이다.

綠담웃담



전 綠담웃담 살펴보기

“
더 좋은 소비, 더 나은 세상
betterness consumption,
betterness world
”

綠담笑담